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위발위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4일(화) 제 3027호



전북도, 민선8기 첫 확대간부회의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확대 간부회의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실과별 핵심프로젝트, 민생안정사업, 올림픽 유치 등 확대 간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전북도>

## 道, 7년 만 확대간부회의...먹거리·민생·올림픽 등 쟁거

### 전북자치도 미래 위한 2025년 주요 현안 추진계획 발표 '도정 원팀' 실현 위한 도정 주요 현안 공유 등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이상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출연기관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첫 번째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도정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청원 간 정책 공감대 형성과 과장 중심의 책임행진 실현이라는 취지 아래 ▲2025년 메가 비전 프로젝트 ▲2025년 도정 핵심 프로젝트 ▲민생 안정 프로젝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프로젝트 등 도정 주요 현안을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2025년 전북자치도의 미래비전·지역 발전을 위한 분야별 대표 사업을 발굴하는 '메가 비전 프로젝트'의 운영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로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전체 실국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발굴해 프로젝트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취지와 발굴 방향에 대한 상세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민선8기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미래첨단 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특별 발굴 △주요 SOC 구축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등 전북도의 주요 현안들의 성과와 추진 계획에 대해 담당 과장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이차전지와 관련해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 '인력양성 및 공급', '기업지원'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산업지원 계획이 제시되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북도만의 노력이 드러났다.

'민생안정 프로젝트'에서는 경기 침체와 각종 안전 사고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비롯해, 복지·안전 등 민생 관련 전반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도민의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전북자치도의 다각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도전하는 전북자치도의 대응 상황과 향후 범용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번 확대간부회의를 계기로 2025년 도정 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도정 전반의 이해도를 높여 도정 원팀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 기자

## 道, 농업-기업 동반성장 정책 강화한다

### 농림수산물발전기금 활용, 농업인 농식품기업 안정적 경영 지원 기금 출연 시군 청년농업인 무이자 혜택, 경제적 부담 덜어 농업 기업 상생 연계 강화, 농산물 계약재배 및 유통 지원 확대 농식품기업 안정적 원료 공급...제품 경쟁력 제고·소득 보장

전북자치도는 지역 농업과 농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주요 정책으로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통한 농산물 원료매입 지원과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을 통한 계약재배 농가 지원 및 농식품기업의 유통·시설 지원이 포함된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활용해 농업인과 농식품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농산물 원료 구입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영자금'으로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년, 이자율은 연 1~2%이다. 특히, 만 45세 미만 청년이 기금

출연 시군(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1년차 이자율을 최대 무이자로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매월 초 각 시군 농업정책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도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은 농산물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생산자단체와 중소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가공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생산자단체의 장

/최준호 기자

비 및 시설 임차, 병해충 관리, 영농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농식품기업은 제품 개발, 마케팅, 운송 및 저장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의 지원 한도는 개소당 최대 2~4천만원으로, 보조율은 80%이다. 사업 신청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기업육성팀)을 통해 오는 19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5sch@jif.re.kr, ke100@jif.re.kr)로 접수 가능하다.

도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은 지속적인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농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식품기업과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도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현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선고 연기

### 재판관 평의서 결정...10일 권한쟁의심판 변론 진행 선고 2시간 앞두고 공지...최소 10일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쟁의심판 결정으로 전례없는 헌법재판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현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3일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현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김 변호사는 같은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관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현재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현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오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혀 예정이다.

/서울=김영록 기자

# 함께

한꺼번에 같이,  
또는 서로 더불어,

DoM 전북타임스신문

전북도민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도, 재난대응 역량·협력 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

##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도민 참여 안전관리 확대 등 도민안전 4대 목표 제시

전북자치도는 2025년 도민안전 비전을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정하고 4대 목표를 제시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선제적 재난대비체계 강화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등 '예방-대응-대비-복구 안전관리' 4대 분야에 걸쳐 4가지 목표(15개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시군·유관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 등과 힘을 모을 방침이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

전점검 1천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 228개소,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 30개소 및 시기·계절별 점검 7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시군, 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해 조기추진 대책, 신규지구 설계 컨설팅, 추진 실태 등 매월 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 방안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을 8개소 16억

을 투입해 설치하고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64%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 도민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생활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7개마을/210백만원)을 추진해 마을에 적합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민생범죄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안전감찰 활동도 강화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오택립 도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전북자치도를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119통역봉사단', 언어 장벽 없는 안전망 구축 도소방본부-여성가족재단, 협약 체결...외국인 긴급 신고 지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와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지난 3일 도청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119통역봉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9통역봉사단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지역사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못받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2023년 4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 전북거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주 여성

과 유학생들로 구성된 119통역봉사단을 운영해 왔다. 119통역봉사단은 현재 15개 국어를 지원하는 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북여성가족재단과 협력, 119통역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전북도,立春 기운 담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결의

## 서예비엔날레 원로 작가들과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전북 현안 적극 실현'도 다짐

전북자치도가 입춘을 맞아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기반한 핵심사업 실현 및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의지를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과 함께 '입춘맞이 2036 올림픽 유치 염원 슬로건 쓰기 및 입춘첩 계첩' 행사를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과 함께 붓을 들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를 향한 전북의 비상'이라는 글귀를 쓰며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입춘 덕담을 나누며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실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이영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도청 관계

자와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지사가 직접 쓴 올림픽 유치 슬로건과 함께 '立春大吉 建陽多慶'이 적힌 입춘첩을 나누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윤점용 집행위원장이 작성한 '2036 하계올림픽' 문구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입춘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다. 오늘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아 슬로건을 작성했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도전정성(挑戰竟成)의 자세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초지일관(初志一貫)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정을 이끌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김 지사를 공동위



전북자치도가 입춘을 맞아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기반한 핵심사업 실현 및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다짐했다.

원장으로 추천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서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15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개최되며 2027년까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서예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서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겠다고 3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천338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상 '주상병'

에 해당하는 질환명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주·부상병 구분없이 최종진단명의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됐고,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서면 신청도 허용,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자치도, 교통문화지수 끌어 올려 '안전도시 자리매김'한다

## 2024 교통문화지수 전국 시군구 중 전북 7위...고창, 군 단위 전국 2위 도내 우수 사례 주목

전북자치도는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두 계단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교통안전 분야에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교통문화지수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50점), 보행행태(20점), 교통안전(25점) 등 항목을 매년 평가하는 지표다. 이는 지자체 간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13위, 2023년 9위에 이어 2024년 7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교통안전 캠페인,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사고 다발 지역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고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 단위 A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2위를 차지해 주목받았다. 고창군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주민 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이 지난해보다 성과를 크게 개선하며 B등급으로 향상돼 도내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도는 고창군의 성공 사례를 도내 다른 시군과 공유하여 지역 전체의 교통문화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교통 주체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안전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만들어 낸 성과다"며 "안전관리는 끝이 없는 여정이기에 앞으로도 전북의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자치도, 유가공업소 축산물 위생단속...21일까지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도내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월 매일업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가공육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유가공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에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이 포함되며,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자동화시스템의 안전성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고의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적정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적 관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적합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점검이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은지 기자

# 감기와 독감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1.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면역력 높이기
2. 손 깨끗이 씻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 코, 입을 비비지 않기
3.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 60개월 미만의 소아, 65세이상의 노인과같이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매년 독감 예방 접종 잘 챙기기



#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행정력 집중

4대 분야 14개 전략과제 추진...청년정책 강화 및 교육발전특구 본격 추진 등 미래 세대 투자 지속



전주시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100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3일 기획조정실 신년 브리핑을 통해 '창의와 도전으로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한 4대 분야 14개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4대 분야는 ▲100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

시로 변화 ▲누구나 존중받는 시민 중심 도시 구현 ▲AI 기반 디지털 행정도시 구축 등이다.

먼저 시는 빠르고 강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매주 1회 특별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운영하며 민생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 예산의 54%인 7,729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집행 특례 활용과 집행 상황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완주군민 대표단과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민간단체 활동과 민간교류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완주·전주 상생 방안과 통합시 미래 비전을 마련해 완주·전주 통

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 2년 연속 국가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한 데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정치권과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토대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국회 단계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정부추경예산 및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추가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청사 별관 확충과 행정동 통합 등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청사 별관 확충의 경우 올해 현대대상 빌딩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월 청사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청년이 정착하는 젊은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청년과 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년희망단(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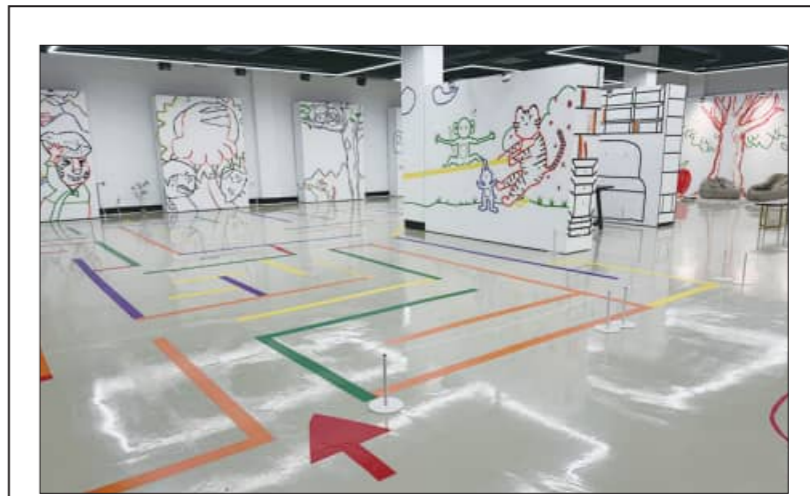
구성 ▲관내 6개 대학과 소통간담회 운영 ▲청년 참여예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올 하반기에는 (가칭)청년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대폭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제2차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선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AI 기반 지능형 행정서비스와 철저한 사이버 침해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경로당 10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화상 건강관리 ▲인공지능 향상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은 전주의 미래 청사진을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모든 공무원이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완산도서관, '미로 속 책과 예술' 전시 운영

완산마루서 테이핑아트 등 체험형 전시...27일까지

전주시 완산도서관은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서관 1층 완산마루(전시실)에서 마스크테이프를 활용한 바닥 미로와 책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운영한다.

지난해 7월 전시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한 완산도서관은 개관 전시 '그림, 책과 친구가 되다'와 청년 작가들이 주축이 된 '낮선 다정함' 전시에 이어 을사년 새해 첫 전시로 '미로 속 책과 예술'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시 공간은 ▲마스크테이프를 활용한 바닥 미로 놀이존 ▲테이핑 아트와 헌책을 활용한 체험존 ▲사방치기·오징어 게임·딱지치기 등의 전래놀이 ▲작가의 방과 전래 동화가 배경이 되는 포토존 ▲참여자가 만들어가는 나만의 서가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인 매주 금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인에 한해 회당 60분간 체험할 수 있다.

전시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완산도서관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책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지는 체험 전시를 통해 전주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올해 884명에 청년활력수당 지원...28일까지 모집

구직 활동 위한 지원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활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취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 활동 비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해 1,219명의 신청자 중 884명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활력수당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미취업 청년(18세~39세, 1985년~2006년생)으로,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 받아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3개월 근무 시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누리집(jbyouth.ezw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대상자는 오는 3월 31일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고, 개인적 성장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고, 개인적 성장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전주시 찾아 '함께 성공' 비전 공유

도내 14개 시군 중 첫 번째 방문, 전주시청 방향 업무보고 청취 후 시민과의 대화 진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전주시를 찾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3일 김관영 지사가 '함께 성공, 함께 혁신, 새로운 전북'을 슬로건으로 전북도정과 전주시정을 공유하기 위해 전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청 전북특별자치도지원 및 전주시의원들과의 환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지사는 이날 전주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2025년도 전주시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및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는 빠르고 강력한 민생경제 회복에 대

한 의지를 피력하고, 전주 대변혁의 마중물인 MICE복합단지 조성 계획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주·전주 통합 추진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함께 풀어나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내용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시민과 전주시 직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 철학을 공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특강을 통해 도정 철학과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과 도전의의를 밝히기도 했다. 또, 민생현장에서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민생행보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전주 MICE 복합단지에 들어올 예정인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완주·전주 통합 추진 ▲글로벌 농생명도시에서의 전주의 역할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 지정 등 전주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의 전주시 방문은 사회단체장들과 만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2025년 전북은 전주와 함께 도전해야 할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이 있고, 그것을 같이 성공시킨다면 전북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방문해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해주시는 김관영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전주가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책 읽는 즐거움, 제14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출발'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독서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제14회 전주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독서마라톤은 독서 활동과 마라톤을 접목한 독서 운동으로, 시는 올해로 14회째 책 1쪽을 1m로 환산한 독서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독서마라톤 대회 참가 부문은 개인 5개 구간과 단체 2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이 확대돼 기존 5세 이상의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민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은 전주시 독서마라톤 누리집(lib.jeonju.go.kr/marathon)에 회원가입 후 참가하면 된다.

참가자는 독서마라톤 누리집 내 독서마라톤 일지를 작성해 독서 활동을 인증하고, 읽은 페이지 수를 누적 거리로 확인하면 된다.

최현장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로, 10명 중 6명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독자들이 독서마라톤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독서습



관을 길러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 행운과 건강 기원 '입춘첩' 무료 나눔

전주시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주대사습청에서 입춘(2월 3일)을 맞아 전주시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춘첩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을 맞이해 '입춘대길 건양대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 적힌 입춘첩을 대문이나 기둥 천장에 붙여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 풍속이다.

이에 시는 주말을 맞아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대사습청 현장에서 직접 휘호한 입춘첩을 무료로 배부했다.

## 부안군 계화면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북자치도는 지난 1일 저녁 부안군 계화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31번째 양성발생이다.

이 농장은 지난 1일 오전 8시경 정기예찰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 조동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중인 육용오리 2만6천500수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삼호유황오리 계열사 및 도내 전체 오리농장 및 관련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지난 1일 11시부터 2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0호(닭 29, 오리 1) 2백만6천수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에서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이번 행사에는 서백 송민호 서원수 목연구회장을 비롯해 후원회 장암이 삼산선영회 이사장, 박복순 서예가, 최지영 한국화가 등이 참여해 입춘첩을 휘호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을사년(乙巳年), 올 한해에도 전주시민들의 가정과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 주택·건축행정 분야 3관왕 달성 '영예'

### 국토교통부·행안부 평가서 잇따라 우수기관 선정...빈집 리모델링·옥외광고 문화 등 높은 평가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농촌 재생 모범 사례로 주목

전북자치도는 2024년도 정부 평가에서 건축행정과 지역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3관왕의 영예를 안고 3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 평가 특별 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빈집 정비 및 재생과 옥외광고 문화 정착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주택 공급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장기 방치 건축물의 주민 편의시설 전환 ▲빈집 정비 및 옥외광고문화 확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도가 추진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했다. 폐교, 방앗간, 휴게소 등 활용도 낮은 건축물을 주민 공동체 시설로 재활용하며 농촌 지역 경계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빈집 정비 성과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주목했다. 도는 기존 유사 조례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2015년부터 빈집을 리모델링해 소외 계층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무상 제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외광고 분야에서는 간판 개선 사업, 폐현수막 재활용, 디지털화를 통한 일회용 현수막 사용 감축 등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3관왕 달성은 지역 건축문화 확산과 농어촌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지방 소멸 위기와 탄소중립 요구 등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소외 계층을 좀 더 지원하자는 결의는 건축행정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농촌진흥청, 참깨 '영웅' 개발...보급 신청 접수 국내 품종 중 수확량 가장 많고 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 높아

농촌진흥청(정장 권재한)은 수확량 많고 병에 강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참깨 '영웅'을 개발해 보급한다. 국산 참깨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자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름지은 '영웅' 종자 신청은 오늘부터 한국 농업기술진흥원 종자광장(https://www.seedplaza.or.kr)에서 개별적으로 받는다. '영웅' 수확량은 10아르(a)당 158kg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참깨 품종 중에서 가장 많다. 기존 품종 '건백'보다도 28% 많은 양이다. 역병, 시들음병, 흰가루병, 잎마름병 등에 모두 강하며 '건백'보다 시들음병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높다. '영웅'은 5월 중순에 심으면 6월 30일에 꽃이 피기 시작해 8월 16일 이면 수확할 수 있다. 줄기길이는 167cm로 길고 꼬투리 가(104개)가 많이 달린다. 종자 천 알의 무게는 2.9g으로, '건백'처럼 크고 통통하다. 종자에 함유된 기름 비율은 56%로 '건백'보다 6% 높다. 이 중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레산이 약 86% 함유돼 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참깨 작목반 류창규 농가는 "작년에 '영웅'을 시범적으로 재배했는데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약 30% 정도 많아 소득이 늘었다"라며, "올해는 작목반 회원들과 함께 '영웅' 재배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경남 창원, 전북 남원, 경북 안동, 전남 신안·해남·여수 6개 지역 총 30헥타르 면적에서 신기술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우수성을 평가해 '영웅'을 조기 확산 시킬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발탁물개발과 김기영 과장은 "수확량이 많고 병에 강한 참깨 '영웅'을 신속히 보급해 농가 소득향상과 안정 재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부터 참깨가 전략작물특별품목으로 추가돼 재배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 LED 조명 활용한 육묘·재배설비 기술, 농업 혁신 이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개발 LED 육묘 기술 모듈형 컨테이너 수직농장 시스템으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지원

농촌진흥청(정장 권재한)은 연구 성과를 이전받은 농산업 분야 창업 기업이 창업 초기 장벽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이전 건수는 총 6,481건으로 연평균 1,300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3.9%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5.4%, 가공업 10.2%, 서비스업 6.3%, 축산업 5.8%, 재배업 4.2% 순이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일 오후 국내 모듈형 수직농장 넥스트그린을 방문해 발광 다이오드 조명을 이용한 육묘 시설을 살펴보고 국내 식물공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찾은 업체는 기술이전 이후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연구개발(R&D) 사업과 지원(2023년)'에 힘입어 자체 보유 기술력을 높이고 고추냉이 우량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 제어 시스템과 생육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취득

시스템을 결합해 고추냉이 빅데이터를 수집해 농업인과 상생·협력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일반 농가가 직면한 재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효진 넥스트그린 대표는 "현재 수직농장 대부분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염채류와 과채류 재배 대신 고추냉이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육묘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스마트팜 기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시스템은 농업의 틀(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의 혁신이 곧 농업의 경쟁력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활발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 전북도-바이오융합진흥원,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

### 지원사업 통합설명회·17개 유관기관 분야별 현장상담소 운영...초청 전문가 특강 동시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6일 바이오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도내 농생명·식품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바이오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지식재산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노사발전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별 지원사업이 총망라된 소개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함과 동시

에 바이오진흥원과 유관기관 13개 분야에 대한 상담소가 차려져 기업측면에서 궁금한 사항과 현안, 애로사항에 대한 분야별 기관 전문가의 현장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유관기관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도내 농생명 바이오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 호남지방통계청, 道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 전북 광공업 생산 4.3% 증가, 대형소매점 판매 감소... "내수 활성화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전북 지역의 지난해 1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다.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북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북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출해도 4.9% 늘었다. 주요 증가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업(15.4%) ▲식품(8.4%) ▲기계장비(14.1%) 등이 포함됐다. 반면 ▲화학제품(-8.0%) ▲음료(-15.7%) ▲섬유제품(-23.5%) 등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해도 증가세를 보였다. 식료품(11.2%), 전기·가스업(16.8%), 기타 운송장비(87.9%)의 출하가 늘어나면서 전체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4.9% 증

가했다. 다만, 화학제품(-9.4%), 전기장비(-15.3%), 섬유제품(-20.9%) 등의 업종에서는 감소세가 확인됐다. 한편, 대형소매점 판매는 11.7%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23.6%)이 유일하게 증가했으며, ▲신발·가방(-26.1%) ▲의복(-18.0%) ▲기타상품(-16.6%) ▲화장품(-16.4%) 등의 소비는 줄었다. 전북 지역의 산업활동 지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관계자는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 위축으로 대형소매점 판매가 감소했다"며 "향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 농협전주시지부, 결의대회서 2036올림픽 전북 유치 염원

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가 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며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직원이 힘을 모대기로 했다. 이날 하양진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를 내건 메시지를 통해 전북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한편, 이날 농협전주시지부는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과 지역 대표금융기

# 커스텀피스, 적십자사에 330만원 상당 핸드위머 전달

피스가 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돼 달라며 330만원 상당의 핸드위머 쿠션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커스텀피스 김미주 대표는 "핸드위머 쿠션을 받아보시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스텀피스는 미디어교육 전문업체로 브랜딩, 마케팅 교육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 전북농협, 익산원예농협 공판장 초매식...활성화 기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3일 익산 원예농협(조합장 김봉학) 공판장 첫 경매인 초매식에 참석해 을사년 한 해 품년과 공판장 활성화를 기원했다. 이날 초매식에는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 익산시지부 진현욱 지부장, 익산원예농협 김봉학 조합장을 비롯해 임직원, 중도매인 등이 참석해 첫 경매 진행 상황 등을 지켜본 뒤 공판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전북농협은 익산원예농협 공판장 외에 전주, 남원, 정읍, 김제, 군산 등 6개 시·군에서 공판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거래물량 9만 9391톤, 거래금액은 약 2,5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익산원예농협 공판장의 거래물량은 3만 3791톤, 거래금액은 약 890억원으로 도내 공판장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다. 전북농협 이정환 본부장은 "을사년 한 해 익산원예농협 공판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농산물 취급액 1천억 달성을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도내 농협 공판장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힘쓰며 전북 관내 농가들의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농축협의 성장·발전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애 앞장설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 전북대학교, 수소산업 미래 인재양성 '맞손'

전북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완주군·현대차 전주공장·수소에너지고등학교 업무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수소 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과 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과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에너지고 등과 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유희태 완주군수, 장현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송현진 수소에너지고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 기관은 수소 분야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지역·산업·학계·연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계획에 따라 지역



전북대학교가 지난 3일 수소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에너지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했다.

주형 수소 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통해 우리 지역의 수소 산업 밸류체인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전국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어, 지역과 수소 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438명 위촉

지난해 대비 70명 증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위한 활동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438명의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한다고 3일 밝혔다. 자원봉사 형태 학생보호 인력인 학교안전지킴이는 각 학교장이 공모 과정을 거쳐 위촉한다. 올해 학교안전지킴이 인원은 지난해 368명에서 70명 늘어난 438명이다. 이들은 350개 학교에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지도, 교통안전 지도, 교내 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학교안전지킴이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는 원하는 학교에 위촉 여부를 문의해 응모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은 다른 어느 자원봉사보다 보람있는 일"이라며 "학교안전지킴이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완주 청완초 에버그린팀, 2025 세계로봇대회 출전권 획득

'퍼스트레고 리그 코리아' 73팀 중 최총 7개팀 세계대회 출전... 청완초, 전주 여울초, 장계·수남초 연합팀 등 참가

완주 청완초등학교가 2025 세계로봇대회에 출전한다.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2025 퍼스트레고 리그 코리아'에서 청완초 에버그린팀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로봇 프로그램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자리였다. 총 73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7개팀이 세계대회 출전권을 얻었다. 전북을 대표해서는 미래교육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플레이 더 퓨처 전북로봇 챌린지 대회'에서 입상한 청완초, 전주 여울초, 장계·수남초 연합팀 등 3개팀이 참가했다. 미래교육연구원은 지역대회 참가팀을 대상으로 교구지원, 교사연수, 사제동행 캠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중 에버그린팀(청완초)은 뛰어난 가치혁신상, usJS팀(장계·수남초 연합팀)은 떠오르는 스타상, 꿈어울SI팀(전주 여울초)은 프로젝트 심판상을 각각 수상했다. 에버그린은 로봇 설계, 프로그래밍, 창의적 미션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과 문제 상황에서의 뛰어난 대처 능력은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된 '2024-2025 퍼스트레고 리그 코리아'에서 청완초 에버그린팀이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장의 원장은 "이번 성과는 전북 지역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앞으로 미래 로봇 과학 분야에서의 도약이 기대된다"며 "세계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전북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서 교육감, "올해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 정책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어야"

지난 3일 전략회의서 당부... "변화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준비 철저히... 새 학년 시작에 차질 없도록"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사진)은 지난 3일 "올해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전략회의에서 "어느새 2월이 돼 학교에서도 새로운 학년도 교육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해

질 시간"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서 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 "지난해 평가에서 제외됐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도 추가돼 올해는 초 3부터 고 2까지 전 학년이 평가를 하게 된다"며 "학교에서 3월부터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월 중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폭설 피해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잘 점검해서 새 학년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탄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직업교육 활성화의 고삐를 당긴다.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으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을 향상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6일 시행된 이 조례는 ▲직업교육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행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라 교육감은 직업교육 추진

## 호원대 총장,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챌린지 동참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이 지난 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이다. 이는 전북지역 주민들에게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림픽 유치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범도민 캠페인이다. 지난달 1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 기관 단체장, 기업대표 등 지역인사들이 참여하여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참여하게 된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은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된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국가 균형 발전 및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호원대학교도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챌린지의 다음 참여자로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을 지명했다. /최성민 기자

# 🔥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별 예방법

### ◆ 전기화재

콘센트나 멀티탭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반드시 뽑아주세요

코드를 뽑을 때 전선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 ◆ 난방 기구 화재

난로나 히터 사용 시 주위에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마세요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외출 시 온열매트 등 난방 기구 전원 플러그를 꼭 분리해주세요

제18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 총 125명 모집

익산시가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할 전문 농업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제18기 익산농업인 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청년딸기코칭반 30명 ▲쌀대체작물반 30명 ▲농산물가공반 25명 ▲신규농업반40명 등 4개 과정 125명이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인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청년딸기코칭반은 18~49세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모집 요강과 신청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농촌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오는 21일 개별 통보되며 누리집에도 게재된다.

농업인대학은 3월 입학으로 시작으로 11월 까지 9개월간 전문 이론교육과 우수농가 견학, 실습 등 과정마다 20강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시의 비전인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 위드(WITH) 청년'에 발맞춰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자 청년딸기코칭반을 새롭게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익산에서 많이 재배되는 딸기를 주작물, 상추와 멜론을 후작물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와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지원과 연락처는 교육 과정별 ▲청년딸기코칭반·쌀대체작물반(063-859-4946) ▲농산물가공반(063-859-7247) ▲신규농업반(063-859-4517)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전액 지원

정읍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전액 지원을 시작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 특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56세 시민(1969년생)을 대상으로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환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에서 진찰료와 확진 검사비를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확진 검사를 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C형간염은 감염 초기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56세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C형간염 국가검진 확진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보건소, 노인인지(틀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산보건소는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 기능회복을 돕기 위한 노인인지(틀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노인인지(틀니)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의 영구치 손실로 저작이 어려워 의치 보철물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치 보철물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방문하거나 보건소로 전화 신청(454-5846~7)을 하면 된다.

신청된 어르신은 3월부터 희망하는 관내 치과의원에서 본인 구강 상태에 맞는 의치(틀니)를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지 담당자(454-5846)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새만금신항 자문위 결과 '미공개'

## 전북자치도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결과 미공개... 공정성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는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김관영 도지사는 본인이 공인한 바와 같이 자문위 의견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문위 회의 결과는 새만금신항 운영 방안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해수부가 새만금신항 운영 방안을 결정, 군산·김제 간 분쟁을 해소토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둔 가운데 군산·김제시는 운영 방식을 놓고 대립 중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One-Port 체계를 주장하고, 김제시는 신규 항만으로 하는 Two-Port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지자체간 분쟁이 지속되자, 김 도지사는 지난해 7월 25일 김제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북자치도는 일체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군산·김제시가 동의할 수 있는 종합적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를 위촉해 자문위를 구성, 이들의 의견을 도 의견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꾸러진 자문위는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전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해수부는 무역항 지정 절차를 밟기 위해 전북자치도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의 방침을 어기고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해수부에 회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와 군산항발전협의회, 서부항운노조 등은 성명서를 통해 자문위 회의 결과 공개와 함께 김 도지사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고봉수 군산항발전협의회장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여부는 지역 물류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자문위의 객관적 판단이 배제되면 이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봉수 서부항운노조위원장은 "자문위의 객관적 판단을 무시한 전북자치도의 행보는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전북도는 회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장은 "자문위의 논의는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도지사는 공인대로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확한 내용을 해수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



문가 의견 수렴은 해수부의 공식적인 무역항 지정 절차 돌입에 대비해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행정 절차를 올 하반기로 미루고 있고, 군산·김제시 간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도의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양 지자체간 오해와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종합적으로 의견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의 무역항 지정 절차 돌입이 선포되며, 무역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해 전북도에 의견을 요청 시 자문위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와 관련 단체는 지난 해 10월부터 자문위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는 결과 공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10기 소셜미디어기자단 출범

## 인플루언서·영상전문가 등 30명 선정... 이달부터 활동 돌입

올해로 10기를 맞는 '익산시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매력을 전파하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익산시는 '제10기 소셜 미디어 기자단'이 이달부터 취재 활동을 시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올해 기자단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30명으로 구성됐다.

실제 지원한 92명의 후보 중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들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자단에 영상상가 10명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공모전

수상자, 사진·영상 전문가가 포함됐다.

시는 변화하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 맞춰 릴스(Reels) 등 짧은 영상 콘텐츠 생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발대식을 열고 각 기자에게 위촉장과 기자증을 전달했다.

기자단은 앞으로 시의 다양한 정책과 소식, 명소, 맛집, 문화·관광, 축제 등을 직접 취재해 익산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안과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정치 세력·폭력 사태 관련 입장문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천지예수교회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 있다거나,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치 세력과의 관계도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의 분쟁에 개입하거나 갈등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며,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에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는 해당 장소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연관 지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악의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원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물리적 충돌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허위 정보를 퍼뜨린 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는 시도 역시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안정과 평화를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천지예수교회

## 익산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자 21가구 모집

## 대출 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억 5,000만 원 용자 지원

익산시가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촌 활성화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참여자 21가구를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 농촌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용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축, 장기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내에서 토지와 주택 등을 담보로 용자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 새 단장 후 재개장

## 차향다원·차향문화관·향기온실·목재문화체험장 등 조성... 먹거리 판매, 체험 관광 활성화

정읍시 임산물체험단지가 내부 정비 작업을 마치고 더 다양한 체험과 편리한 운영 시간으로 오늘부터 재개장한다.

임산물체험단지(이하 '체험단지')는 정읍 임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 힐링 체험 관광 활성화, 목재 문화·교육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차향다원 ▲차향문화관 ▲향기온실 ▲목재문화체험장 등이 마련돼 있다.

차향다원에서는 대추차, 한방차, 복분자 요거트스무디 등 정읍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으며 즉

육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차향문화관에서는 ▲호두초코 쿠키 ▲버섯피자 ▲힘빰 ▲모두리형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고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원목 의자 ▲독서대 ▲흔상 만들기 등 목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체험단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시설운영과 산림휴양시설팀(063-539-5778~5779)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급·취업, 창업 시 50만 원 성공금 추가 지원

정읍시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정읍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졸업·중퇴·수료자다. 모집 인원은 총 94명이며 신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byouth.ezweel.com)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참여자는 필수교육을 이수한 뒤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

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당 지급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매출 발생 시 50만원의 성공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63-539-56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중국 펜싱 국가대표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 중국 산동성 펜싱팀 선수·감독 등 총 45명 훈련 합류... 첫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 쾌거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익산시에서 뜨거운 담금질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실내체육관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펜싱 국가대표 후보선수 동계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훈련에는 사브리, 예페, 플뢰레 종목

별 남자 선수 24명, 여자 선수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김창근 전임감독을 포함해 지도자 6명과 의무 트레이너 1명이 선수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일부터는 중국 산동성 펜싱팀이 합류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산동성 펜싱팀은 이달 7일까지 선수와 감독 등 총 45명이 훈련에 참여한다.

익산시는 첫 해외 전지훈련팀 유치라는 쾌거를 이룬 만큼 선수단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소방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챙긴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관련해 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특히, ▲이상 후스트레스(PTSD) 예방 및 관리 ▲심

리 상담 지원 확대 ▲직원 맞춤형 멘탈 케어 시스템 구축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체계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언제든 마음의 짐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협약 체결

## 시-귀농귀촌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사업비 1억9천3백만원 투입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태양)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5년 업무협약 체결 위탁 사업비는 1억9천3백만원으로 신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회합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귀농귀촌 정보수집 및 제공,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 교육프로그램, 지역민들과 화합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 귀농귀촌협의회는 매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제시 관광, 문화, 농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며 귀농·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태양)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상담 등 김제시 귀농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양측의 협약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

촌 분야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라며 “김제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노동리 일대 도로 확포장...13억원 투입

## 꽃정원-군립체육관 도로 개선 사업 착수,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기대'

고창군이 노동리 일대 관광지(고창꽃정원단지, 자연마당, 노동저수지)방문객 증가에 따라 접근성 향상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를 확·포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 꽃정원단지과 자연마당, 노동저수지 등 고창군 도심 속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도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꽃정원단지로 가는 노선(L=650m)을 2차선(B=12.5m)에서 3차선(B=16.25m)으로 확포장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의 진행 후 내년(2026년)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 완화와 관광지 접근성 향상 등 교통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꽃정원단지, 자연마당 등 고창군 도심 속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50명 모집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AI·IoT 기반 건강관리

부안군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자 모집은 1차 모집으로 이달을 시작으로 3월, 5월, 7월, 9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 차수 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부안군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기간 동안 제공된다.

이를 통해 보건소 전문 인력이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ICT

기술과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활 걸자”

심덕섭 고창군수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2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명절 특수를 누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지갑 꺼내길 주저하면서 지역상점과 식당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경기부양 특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책에는 ▲각종 행사와 야외·회합부터 2-3월 조기추진 ▲유관기관·사회단체 지역식당·카페 이용 장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겨울이 깊었으니 봄이 멀지 않았다”며 “모두함께 지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통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행정인턴 20명 근무 시작

## 학력기준 완화, 행정인턴사업 참여 기회 확대

고창군은 올해 선발된 행정인턴 20명이 10개월간의 근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인턴 사업’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실무를 배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3일 모집공고 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했으며, 3일부터 각 행정부서에 배치됐다.

주요 근무지는 고창군청과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총 11개 부서이며, 근무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10개월이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인턴 선발 과정에서 학력기준을 없앴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창군 내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행정인턴 근무를 통해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아 실무능력을 함양해 고창군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를 대거 길 바란다”라며 “이번 학력기준 완화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행정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2025년도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신청·접수

부안군은 2025년도 전략작물 직불제사업 신청기간은 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또, 하계작물은 3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원되는 선택형 직불제이다.

농업 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된 농지가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업정책과 브랜드육성팀(063-580-4038)이나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 산불분야 종사자 발대식...산불예방 총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3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분야 종사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 37명, 산불감시원 49명)와 관계 공무원 등 10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불분야 종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진화대장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산불분야 종사자들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산불감시 주요 임무와 근무수칙 등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직무 및 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해 산불방지대책본부(2월 3일~5월 31일)를 설치해 읍·면과 상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재난 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영농 부산물 파쇄 및 수거를 지원하는 등 산불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 임무를 맡고 있는 산불종사자들을 격려하며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지난날 31일 고창군청 앞 회교교차로에서 고창경찰서, 고창군도보안전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 수칙 환기 및 교통안전 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과속 및 무리한 추월 금지, 흡음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과 같은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군민 모두가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전국 사업체조사' 실시...내달 4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사업체와 고용구조를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주관하고 김제시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6명의 조사원이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을 현장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며, 조사여건에 따라 전화조사 등의 비대면 조

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하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확정 공표돼 국가통계포털(KOSIS)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은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므로 각 사업체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과 조사에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유료화 전환

## 최초 2시간 무료, 초과 1시간마다 5백원씩

고창군이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총 주차대수 258면)를 준공하고, 무료개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상당 부분을 장기주차 차량이 차지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

로 전환했다.

공공시설물인 주차타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정차난 해소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며, 평일은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이후 1시간마다 500원을 징수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실시하게 됐다”며 “유료화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유료화 전환

## 최초 2시간 무료, 초과 1시간마다 5백원씩

고창군이 주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21년 고창읍 공영주차타워(총 주차대수 258면)를 준공하고, 무료개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상당 부분을 장기주차 차량이 차지하면서, “주차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 고창읍 공영주차타워를 본격 유료화

로 전환했다.

공공시설물인 주차타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정차난 해소 등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하며, 평일은 최초 2시간 이내 무료, 이후 1시간마다 500원을 징수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고창읍 공영주차타워가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료화를 실시하게 됐다”며 “유료화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초기 산불감시체계 구축과 산불발생 시에는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장비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산불로부터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없는 김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순창 민선8기 공약이행률 87.5% 달성

### 5개 분야 총 79개 사업 중 52개 사업 완료, 이행률 지난해 대비 상승 올해 노인 일자리 3천개·농민기본소득 확대 추진...행정신뢰도 제고 총력

순창군 민선 8기 최영일 호의 공약 이행률이 87.5%를 달성하며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 중 52개 사업이 완료됐고,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사업의 추진율을 종합한 평균 이행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상당한 진전을 보인 수 있다.

이번에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로 전환된 주요 사업은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노후화된 마을회관 현대식 리모델링 추진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 노후화 개선, 부품수리비 지원 등 총 10건이다.

또한, 군의 역점사업인 ▲경천 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마을하수도 보급률 확대 등이 지난해 3분기 대비 이행률이 크게 상승하며,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군은 2025년에도 ▲노인 일자리 3000개 달성,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 ▲객토사업 지원,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등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공약이행률 또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4년에는 일부 행정절차 지연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정채 없이 진행되며 이행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주민배심원제와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후반전에 돌입한 순창군은 상대적으로 진행률이 낮은 일부 하드웨어 사업도 수시 점검하고, 다각적으로 해결방향을 모색해 임기 내 단계적 완료를 목표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파카소 진품 도자 전시

### '20세기 거장 파카소, 흙과 불로 완성한 예술' 4월 24일까지

완주군이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20세기 거장 파카소, 흙과 불로 완성한 예술' 파카소 진품 도자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2028년까지 4개년간 도비 총 26억 원을 지원받았다.



첫 번째 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은 세계적 작가인 파블로 파카소의 도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주요 화가 중 하나로 평가 받는 파블로 파카소는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판화, 도자를 넘나들며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 '20세기 거장 파카소, 흙과 불로 완성한 예술'에서는 파카소의 작품 중에서도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자기 작품과 그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파카소의 독창성과 다재다능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열리며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 작품 저작권 관계로 전시실 내부 촬영(사진, 영상 등)은 철저히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90-3862-3)로 문의 가능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 완주군, 초중생 대상 중국어캠프 운영...대학생 멘토 참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지난 1일부터 2주간 완주군 인재개발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38명을 대상으로 중국어캠프 운영을 시작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중국어캠프는 원어민 및 대학생 멘토와 함께 중국의 음식, 서예, 무술, 전통의상, 음악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문화를 체험해 보면서 상황별로 직접 중국어를 구사하며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국어 표현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중국어캠프에는 대학생 멘토 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중국어학교에 참여해 HSK 4급, 5급을 취득한 학생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 남원시, 드론플랫폼 기반 현장지원시스템 첫 시연

### 전북 최초 드론 자율 비행 시연...드론·AI 활용 산불 모니터링, 재난 대응 시스템 공개

남원시는 3일 운봉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전북 최초로 드론 무인 자율 비행 및 현장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경식 남원시장, 시의원, 남원소방서, 남원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산불방지 근로자 등 총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철산불방지 근로자 발대식과 함께 진행했으며, 드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현장지원시스템을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3일 운봉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전북 최초로 드론 무인 자율비행 및 실시간 지휘본부 현장 모니터링 등 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드론이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 발생 지점을 탐색하고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지휘본부 현장지원시스템에 송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드론에 장착된 확성기를 통해 산불 예방 및 안전계도 방송 등을 선보였다.

한편 드론 플랫폼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촌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이다. 이 플랫폼에는 방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방치 폐가 등을 자동 분석하는 AI 분석 알고리즘과 드론 무인 자율비행 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드론은 조종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좌표 입력으로 비가시권에서 자율 비행을 하며 4K 고해

상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해 현장지원시스템에서 즉각적인 상황 모니터링을 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통한 실증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금연아파트' 모아미래도, 흡연대책 절실

완주군 행정타운 내 모아미래도 1차 아파트 상가 앞과 주변 도로가 담배꽂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올바른 시민의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파트 흡연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마땅한 흡연 장소나 담배꽂이를 버릴 곳이 없어 상가 앞과 주변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꺾꽂이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어 지저분함은 물론 심각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행정복지타운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3년 분양이 이루어져 현재 309세대의 전세대 입주자가 완료된 상태다.

이후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업소, 편의점, 커피숍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자, 아파트 주민들이 완주군에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입주민 2/1의 동의를 얻어 완주군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장소나, 재떨이 등 흡연시설이 전무해 흡연자들이 아파트 주변 도로변이나, 상가 주변 등에서 흡연을 하고 버릴 곳이 없어 무단투기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A커피숍 앞 인도 및 도로와 후미진 곳에 흡연자들이 버린 담배꽂이가 널려 있고, 아파트 관리소 직원, 일부 어르신, 커피숍 직원들이 수시로 청소해도 반복된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나 군과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특히 이 아파트 103동 뒷편에는 담배꽂이가 수도북해 흡사, 담배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하고, 이에 따른 냄새로 인해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아파트 내부에 조성된 바깥 마른 잔디는 버린 담배꽂이로 인해 화재 위험성까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흡연자들의 자성은 물론, 아파트 자체 관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기관의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모아미래도 1차 아파트는 완주군

## '남원형 퀵스타트' 지속 추진...기업 유치·인력난 해소 박차

### 미국 조지아주 퀵스타트 모델 적용...맞춤형 인력 지원 강화, 교육생·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남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작년에 이어 2025년에도 본격 추진한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남원 실정에 맞게 기획한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원에 투자 결정한 기업의 초기 인력난을 해소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은 간식 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동된 것은 퀵스타트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남원에 투자한 '원푸

드' 기업도 작년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인력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가동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은 (사)전북산학융합원(원장 강승구)이 사업을 맡아 수행중이며, 남원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에서 남원 시민을 채용해 사업단을 운영중에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3년 연속 선정 도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신청 분야는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 행정 서비스 3개 분야로 이번 남원시는 드론 레저스포츠와

드론 배송을 공모 신청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2월 14일까지이며, 평가 및 최종 선정은 2월 중 이루어진다.

추진실적으로 그간 남원시는 2년간 총 22억 국비를 확보해 '23년 첨단 드론 스포츠 자동차 시스템 개발,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소방 드론 고도화 사업과 '24년 남원형 레이싱 드론 기체 개발, 드론 배송, 드론 항공촬영으로 행정서비스를 위한 3D 맵을 구축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70세 이상 주민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순창군은 70세 이상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술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반드시 수술 전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사전 문의를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활동비 월 20만원으로 인상

완주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활동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3일 완주군은 생활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비를 인상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홀몸노인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

는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이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홀몸·조손·고령부부 가구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완주지역자활센터, 용진노인복지센터, 예은노인복지센터, 구이노인복지센터, 완주노인복지센터에서 2,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179명의 종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는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일상생활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 돌보기' 운영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3월부터 진안읍 중평·하평 마을회관에서 우울이나 불안,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로 마음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2월 한 달 동안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심리지원 집단 프로그램(마음돌보기)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전통 농사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로 어르신들의 지치고 약해진 몸과 마음에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차의 기운(훈)을 얼굴 전체에 쓰고 호흡하면서 논, 코, 입(기관지), 귀 등으로 차 훈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이는 정신건강과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을 파악하고 우울 고위험군 심리상담 필요자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연계도 진행해 마음주인들의 마음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한편,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자살시도자 위한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063-430-8529)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배수 개선 사업비 66억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전액 국비 사업 추진

진안군은 백운면 백운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배수 개선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국비 66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배수 개선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 인근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를 개선함으로써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안군은 농경지인 백운지구의 상습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공사과 함께 배수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그 결과 2025년 기본설계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군은 202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완료까지 4~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더불어 앞서 시작한 연장지구



진안군은 백운면 백운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배수 개선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국비 66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대량지구(2023년), 은천지구(2024년)의 배수 개선 사업도 조속히 완료해 재해로부터 군민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영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서는 재해 발생 예방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내 침수 피해 지역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수 개선 사업 지구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심민 임실군수, 하계올림픽 전북유치기원

"전북 문화전통 알릴 기회 될 것", 도민에 많은 관심 부탁

심민 임실군수가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하며 도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는 캠페인에 힘을 보탤다.

심민 군수는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 유치되면 전 세계인들이 임실을 비롯한 전북 곳곳을 방문하게 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전북의 문화와 전통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심민 군수는 다음 주자로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과 임실군체육회 김병이 회장을 지목하며 릴레이의 열기를 이어갔다.

/임실=한병열 기자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올만한 무주 만들기' 주력

체제형 가족실업농장 운영 등 귀농귀촌 정책 눈길...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열쇠 기대

무주군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올만한 무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인 유입 정책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전 체계를 활성화하고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귀농인의 집 조성'과 '전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에 1억 4천만 원을 투입, 빈집 리모델링과 이동식 주택 구입, 임시거주지 및 연수비,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담기구 운영과 도시민 교육, 멘토 컨설팅 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1억 6천만 원을 투입한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무주 생활과 문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거주시설 4곳을 운영(1억 2천여만 원)하는 데도 내실을 기한다. 공약 사업이기도 한 체제형 가족실업농장은 주택(10동)과 텃

밭을 기반으로 영농기초 이론 및 실습을 체험하는 곳으로 오는 7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단기간 거주하며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안심면과 무풍면 2곳에서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은 전일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19세~39세 청년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도 본격화한다. 16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 2층 규모에 텃밭 16곳과 농기계 창고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자금 지원에도 눈길을 돌린다. 10개 사업에 총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공약 사업인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6가구·월 15만 원씩 최대 12개월)를 비롯해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용(10가구·가구당 2백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주택 수리비는 총 10가구를 지원(가구당 6백만 원)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욱 과장은 "귀농·귀촌 상담과 설문,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통계화시켜 귀농·귀촌 정착률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귀농·귀촌 전용 상담 채널을 개설하고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한 것 또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귀농·귀촌 상담 전화는 도시민과 귀농·귀촌인들의 상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1551-6858로 전화하면 무주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과 정착 관련 애로사항, 창업에 비롯한 주거 지원, 그리고 농업 관련 교육 등 맞춤형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63명이 상담 전화를 이용했으며 영농 및 창업,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 등 64건이 접수·처리되는 등 운영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을사년 설맞이 합동세배 행사 개최

장수군은 지난 31일 산서면과 계남면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세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효·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어르신들께 공감을 표하며 지역사회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해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건강한 한해를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산서면에서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사무소에서 합동세배가 진행됐다. 산서면 번영회, 체육회,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적십자회 등 6개 단체가 주관해 행사를 준비했으며 세배 후에는 적십자회에서 마련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특히 진전마을 장하열 교수의 시낭송이 더해져 참석자들이 충·효·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최훈식 군수는 "을사년 푸른봄의 기운을 담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며 "새해에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환자 만족 서비스 위한 친절교육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응대 및 친절 의식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의료원은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친절교육에서는 환자 만족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원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친절 서비스의 실천을 중점으로 다뤘다. 또한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 응대 요령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친절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친절 교육을 통해 환자와 방문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며 "나아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음식점 시설개선 추진...최대 1천만원까지

장수군이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관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테이블 및 의자 교체 ▲영업장 내 후드·덕트 환기시설 도색·교체 ▲주방·홀·화장실 등 내·외부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이며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주소 등록지가 장수군으로 돼 있는 영업주이다.

지원규모는 총 6개소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해

야 한다. 지원금은 영업주가 시설을 개선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음식점을 파악해 장수군의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중소기업 대상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임실군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을 의미하며, 사물인터넷(IoT)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올해 6월 30일까지 1억원을 투입해 설치를 지원한다

는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시설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이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4~5종) 설치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임실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14일까지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

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검토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은 기기 1대당 4백만원 내에서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대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 기간 내에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농업용 드론국가자격증 취득목표...전문가양성

무주군이 드론 활용 기술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도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상·하반기)을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3주간 모의비행 요령 등의 이론교육(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해 기본 및 숙달 비행 등 실기교육(반딧불 드론교육원)을 진행한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내 거주 농업인, 운전 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 요건) 등이 참여하게 될 이번 교육은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종자 파종 등 폭넓게 활용이 가능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2019년도부터 도비를 확보해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교육을 받은 81명 중 7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활용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자부담 50만 원(1인당)을 포함해 사업비 2천만 원(1인당 교육비 150만 원 지원)을 투입한다"라며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오리엔테이션 열려

진안군은 3일 군청 군수실에서 2025년 겨울방학 행정인턴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행정 인턴으로 선발된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요령 교육과 민원인 응대를 위한 안내교육 등을 진행했다.

대상자들은 3일에서 28일까지 본청과 면 행정복지센터(백운면, 삼진면), 진안군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진안

읍, 정전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돼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회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대학생 행정인턴의 경험이 자립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2018년부터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익산 인화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 위원회, 화재 피해 가구에 성금 전달**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협의회(회장 유근우)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순희)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고자 18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가구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할머니와 초등학생 두 손자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지난달 16일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인화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각각 130만 원과 50만 원의 성금을 마련해 이날 피해 가정에 전달했다.

앞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정기정)도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200만 원을 전한 바 있다.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해석)는 지역특화사업인 긴급구호사업으로 피해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노암동 주민, 손뜨개 수세미 50개 기부**

노암동행정복지센터는 한 주민으로부터 손뜨개로 정성껏 만든 수세미 50개를 기부 받았다. 이번 기부는 해당 주민의 두 번째 나눔으로, 지난번에도 수세미 100개와 바구니를 손수 만들어 전달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했다.

기부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손뜨개 기술을 활용해 실용적인 물품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차미화 노암동장은 “두번째 이어진 귀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재능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기부자님 덕분에 노암동이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알림] 전주비전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장은수) T: 063-227-1124

—정기총회—  
일시: 2월 18일(화) 18:30분  
장소: 침례우도청점

**완주군, CCTV 관제요원 2명 군수표창 수여**

치매환자 발견 및 화재예방 등 기여...최병주·정오남 요원 군수 표창

완주군이 3일 열린 청원 월례조회에서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최병주(여, 62), 정오남(여, 56) 관제요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최씨는 설날인 지난달 29일 CCTV 모니터링 중 오후 9시 40분 쯤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가 거리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상하다고 판단한 최씨는 경찰상황실에 신고해 치매어르신을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승용차 전복



완주군이 3일 열린 청원 월례조회에서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크게 기여한 최병주, 정오남 관제요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정오남 최병주. /완주=김명근 기자

사고가 발생하자 112에 즉시 신고해 인명피해와 2차 교통사고를 예방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택가로 번질 수도 있었던 화재를 신속히 막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촘촘한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 기자

**(주)대경스틸산업 정찬원 대표 가족, 고창에 2천만원 기탁**

3년 연속 고향사랑 거액 기탁 화재...고창사랑 실천 지역 사회 감동 선사

고창군 ㈜대경스틸산업, ㈜대경볼트산업 정찬원 대표와 가족들이 지난달 27일 고창군청을 찾아 2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정찬원 대표와 가족들의 3년째 고향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000만 원씩 기부했다.

이번까지 3차례의 꾸준한 고향사랑기부로 내마음속 고향 고창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정찬원 대표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출신으로 흥덕농공단지는 물론 서울, 안성에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고향인 고창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항상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청에서 (주)대경스틸산업 정찬원 대표 가족이 2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효천한울어린이집, 전주시복지재단에 101만원 기부**

효천한울어린이집(원장 박미현)은 3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1만 원을 기부했다.

효천한울어린이집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별방 책방 도서관 수익금 전액과 연말 이웃돕기를 통해 모은 기부금 전액을 더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부를 결정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전주시복지재단의 '2025년 백만천사 2호'가 된 효천한울어린이집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번째 백만천사 나눔에 동참하며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박미현 원장님을 비롯한 효천한울어린이집 원생들과 부모님들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된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장수군청 서기관 승진자 3명, 장학금 쾌척**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에 따르면 올해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장수군 공무원들이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탁자는 3명으로 성영운 농업건설국장, 차주영 장수읍장, 황우상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부부장이다.

이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며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장수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이사장은 “장수군청 간부 공무원들의 승진의 노고가 꾸준한 기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 드린다”며 “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 설날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임실군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길영, 민간위원장 변현섭)가 지난달 24일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및 복지 사각지대 30가구에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행복꾸러미는 각 가구의 필요한 설날 관련 식재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명절의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됐다.

변현섭 민간위원장은 “설날이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길영 지사면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지사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시 유승호 신태인읍장, 부의금 일부 장학금으로 기부**

정읍시 신태인읍 유승호 읍장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달 31일 유승호 읍장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유 읍장의 부부상부의금 일부로 마련됐다.

그는 “고인의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미래를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승호 읍장은 지난해 9월 신태인읍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박정순 어르신, 1백만원 전해 노인일자리 소득 모아 매년 기부**

설 연휴 끝자락에 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뜻깊은 기부를 해 진한 감동을 전했다.

87세의 고령인 박정순 어르신은 지난 31일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1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저축해온 소중한 돈이기도 하다.

박정순 어르신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특히 이를 통해 받은 금액을 모아 매년 10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익명으로 기부하다가 올해에서야 신분을 밝혀 주의를 놀라게 했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박정순 어르신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다”라며 “어르신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가스 사용량 줄이는 법**

 <p><b>실내적정온도</b> 20°C</p>	 <p><b>샤워시간</b> 5분 줄이기</p>	 <p><b>안쓰는방</b> 난방온수 분배기 잠그기</p>
 <p><b>복벽이, 문풍지</b> 커튼으로 틈새 열손실</p>	 <p><b>노후배관</b> 오염물질 제거 난방효율</p>	 <p><b>노후보일러</b>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p>

〈一事一言〉



극단주의가 서부지법 난동 불렀다(1)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1월 19일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한국에서 극단주의 정치세력과 추종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극단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한국을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극단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김태형, 2019, 을유문화사 참고)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극단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로 치부되어 왔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을 70여 년 넘게 지배해왔던 극우세력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극단주의 집단이다. 국민의힘이나 태극기부대 같은 극우세력은 일찍이 7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내내 극단주의 집단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 극단주의 집단이 한국을 지배해 왔음에도 한국이 극단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비록 극단주의가 극우지배층 내에서는 일상이고 보편이었으나 그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승을 부렸던 일베 현상에서부터 최근의 서부지법 난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극단

주의는 극우 지배층의 테두리를 넘어 전사회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극단을 '맨 끝', '끝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처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혹은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극단의 의미는 '맨 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극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극단주의 개념과 동일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흑인 노예제가 폐지되기 이전 시기에 이 주제를 기준으로 펼쳐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면, 한쪽 끝에는 노예제 폐지론이 있고 다른쪽 끝에는 노예제 존속론이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노예제 폐지론은 극단주의가 된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단을 '맨 끝'의 의미로 정의할 경우 올바른 것 혹은 선(善)마저 극단으로 단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극단주의 연구자들은 극단주의를 '맨 끝'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로 바라본다. 극단주의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갖는다.

배타성 : 배타성(排他性)은 자기(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를 제외 한 나머지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려는 경향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는 내란을 통해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 배타성은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 없이 무조건 자신이 옳고 남

은 틀리다면서 상대방을 배척한다. 배타성이 심한 극단주의자는 반대자의 절멸을 바라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한다. 배타성은 필연적으로 강박적 흑백 사고 혹은 흑백 논리로 이어진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배타성을 주요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 역시 '나는 국가이고 나머지는 다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다.

광신(狂信) :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나 판단을 흔히 '이성'으로 표현하곤 한다. 광신이란 이성 혹은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 믿음이다. 한국의 극단주의 세력이 '중국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의심이나 사유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극단주의는 흔히 광신으로 일컬어지는 비합리적 믿음, 병적인 믿음을 주요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신자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즉 광신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나아가 그것을 미친 듯이 믿는다! 이런 점에서 광신은 망상과 가까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요 : 만일 어떤 이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세상을 등진 채 두문불출하며 살아간다고 해보자. 그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

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무조건 배척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웃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 극단주의의 주요 특징인 배타성과 광신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즉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타인들을 배척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그럴 의향도 없다면 그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 반면에 광신적인 누군가가 타인(외부세계)을 배타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그는 극단주의자다. 결론적으로 극단주의는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배타성과 광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음모론적 신념, 망상적 신념을 타인들, 사회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극단주의 집단이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을 발췌합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농업과 기업 동반 성장,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자치도가 농업과 농식품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 농산물 원료 매입 지원과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은 농업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지역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통한 용자 지원은 농업인의 원활한 원료 조달을 가능하게 한다. 농업인은 개인 최대 1억, 법인 최대 3억의 운영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으며 2년의 대출기간과 연 1~2%의 낮은 이자율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농업인에게 1년 차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점은 이들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은 생산자단체와 중소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 계약재배를 촉진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가공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장비 및 시설 임차, 병해충 관리, 영농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식품기업은 제품 개발, 마케팅, 운송 및 저장 경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하고 농업인은 일정한 판로를 보장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농업과 기업이 서로 의존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 농업과 농

식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업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며 농식품 기업은 이를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두 부문이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때 지역경제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원 대상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과 중소 농식품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기업 간의 신뢰가 없다면 계약재배 정책이 일시적인 지원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 셋째,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농산물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업과 농식품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농업인과 기업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가공·소비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전북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앞으로도 전북도가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보완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 지역농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취석정**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주거생활  
-지정일 - 1997년 7월 18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고창읍 노동로 191-9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 (출판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안주지국 010-3672-0308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2월 / 이 외수

도시의 트럭들은 날마다  
살해당한 감성의 날말들을  
쓰레기 하치장으로 실어 나른다

지하실에 은둔해 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에  
날마다 그대에게 염서를 쓴다

그대가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  
소스라쳐 문을 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날말들은  
지명수배 상태로

세월이 그리움을 매장할 수는 없다  
밤이면 선잠결에

뜬눈으로 정박해 있는 도시  
진눈깨비만 시린 눈썹을 적시고 있다

시인 이 외수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인제고를 졸업하고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나기', 장편

'들개', '칼', '산목', '벽옥금학도' 등을 비롯 예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발표했다. 1990년 '4인의 에로틱 아트전',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로서의 경력도 있다. 소설 '훈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학하학' 등이 있다.

전북타임스는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신문구독 283-8800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타임스신문

# 김제시, 신기술 보급·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

## 식량작물, 특화작목, 과수 등 각 분야 총 사업비 약 20억 원 투입, 18개 시범사업 추진



식량작물분야



특화작목분야

최근 농업 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기후위기를 농업 현장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이상기상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어 기존 재배기술이 한계에 직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행농법에서 과감히 탈피해 최선의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농업 현장에 새로운 기술과 작부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농촌진흥법」 제1조는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전국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김제시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작부체계를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에 맞는 신종종 발굴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식량작물, 특화작목, 과수 등 각 분야에 걸쳐 총사업비 약 20억원을 투입, 18개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 식량작물분야

예로부터 김제는 너른 호남평야를 기반으로 곡창지대를 이뤘고, 최근에는 전국 최대 논공 주산지로 자리매김할 만큼 식량작물분야는 지역 농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027년부터 김제지역의 주력 생산 품종인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공급이 중단되고, 벼 재배면적 감축 및 논 타작물 재배 전환 가속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나가면서 지역 농업소득을 안정화 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먼저, 신동진벼 정부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지역에 맞는 벼 신종종 발굴을 위해 현장 적응성 시험 재배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2억원을 투입, 30ha 규모의 체종포를 조성해 우량종자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현장 적용 및 효과 검증을 통한 논 타작물 안정생산 유도하기 위해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2050 탄소중립,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농업 등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기술 보급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빠른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영농현장 기

술 지원 및 컨설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 ◆ 특화작목분야

특화작목분야는 채소, 특용작물과 화훼 등을 다루는 분야로 최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시설 환경개선, 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어왔고, 연중재배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들이 많았다.

특히, 2023년 고온기 양액냉각기를 활용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2024년 수경재배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 기술 패키지를 접목한 시범사업은 이상기상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술 투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에는 여름철 온도 저감 등 시설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양액냉각시스템과 포그 냉난방 시설, 관수 시설 등 피해경감 기술을 패키지와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설원에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등 7개 사업에 총 4억여 원을 투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보급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에 적극 힘 쓸 예정이다.

### ◆ 과수분야

과수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직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등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고, 과중에 따라 생육시기별 최적생육모델을 개발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재배직지가 북상

하고 있어 만감류, 애플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을 25ha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소득작목 보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검역병해충과 외래 돌발 해충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과수분야에서는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등 10개 사업에 예산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병해충과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과수 병해충 공동방제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제값 받는 농업을 위해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 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수출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에 25억원을 투입하여 25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였고, 2023년 김제 프리미엄 배 300톤과 샤인머스켓 포도 1.2톤을 캐나다, 홍콩 등 7개국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이어 2024년에는 배 200톤을 캐나다로 수출하는 등 내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 ◆ 신소득작목분야

신소득작목분야는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한 양액재배 미니씨감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연간 10억원이 넘는 중서 구입 비용 부담을 해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2기작용 가을감자 신종종 현장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에서 육성된 감자 신종종을 확대 보급하여 2기작 가을감자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해바라기, 아열대 식물 등 신소득작목을 적극 발굴하

는 한편, 새로운 작부체계 개발을 위해 시험 재배 및 비교 실증사업 추진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는 농업 분야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추진으로 그치지 않고, 다각적으로 성과를 분석 도출해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

정성주 김제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농가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은봉기 기자



과수분야



신소득작목분야